

<지구는 평평하다>

로그라인 : 유명 연예인 진은 어느날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는 사회운동단체 UJW에게 납치를 당해서 황당한 요구를 받자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탈출을 시도한다.

기획의도 : 최근 우리나라의 몇몇 SNS는 더 이상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공간이 아닌 특정 견해를 가진 하나의 커뮤니티로 변질되었다고 생각한다. 스스로의 사회적 정의를 위해 투쟁하며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지적 허영심을 위해 자신과 다른 견해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마녀사냥으로 지적하곤 한다. 논리적 토론은 존재하지 않고 자신들에 반하는 사람들에게 혐오주의자, 차별주의자와 같은 프레임을 씌워 선동을 하기도 한다. 이 영화는 그런 실재하지 않는 그들만의 세계에서 선민의식과 폐쇄성에 찌들어 자신들이 하는 행동에 큰 착각을 하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이다.

주제 : 선민의식과 폐쇄성에 갇힌, 배타적인 집단의 주장 방식

등장인물

진 : 25, 남 / 한국에서 가장 많은 SNS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탑 셀러브리티.

회장 : 28, 여 / 지구의 평평함을 주장하는 사회 운동단체 UJW를 이끌고 있는 리더.

독고찰스 : 27, 남 / 15세에 MIT를 졸업하고 전직 NASA 수석연구원이었으며 박사 학위를 7개나 가지고 있는 천재.

선희 : 23, 여 / 과거 잘나가는 아이돌이었으나 스캔들에 휘말려 그룹을 탈퇴하고 SNS 활동과 팬들 상대로 상품 판매 사업을 하는 UJW의 멤버

일국 : 26, 남 / 유튜버로 지구가 평평하다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토크와 출신 백수.

만태 : 37, 남 / 과거 지구본 제작업체 사장이었으나 회사 부도 후 UJW의 멤버로 활동 중.

성우 : 31, 남 / 지구과학 석사과정의 대학원생. 지구평면설과 동시에 천동설 신봉자.

예희 : 24, 여 / 진의 데뷔시절부터의 광팬. 모종의 이유로 UJW 활동 중.

줄거리

‘우주적 올바름을 위한 투쟁단체’인 UJW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으며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연예인 진은 어느 날 밤 UJW에 납치를 당해 그들의 본부로 끌려 오게 된다. UJW가 진을 납치한 이유는 다름 아닌 그의 영향력을 이용해 SNS에 지구가 평평하다는 내용을 올려달라는 것. 황당해하는 진에게 협회 멤버들은 계속해서 설득을 시도한다. 논리적으로 거절하려던 진은 계속된 논쟁도중 이들에게는 논리가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회의장을 탈출하려고 한다.